



선덜랜드의 지동원(왼쪽에서 세 번째)이 6일 잉글랜드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경기에서 네마니 비디치와 공 중볼을 두고 있다. 아래는 한국인 맞대결을 벌인 박지성과 지동원. /연합뉴스

지성-동원 '코리안 더비' "형도 아우도 잘했다"

프리미어리그 올 시즌 첫 대결... 맨유, 선덜랜드에 1대0 승

2011-2012시즌 처음으로 잉글랜드 프로 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한국인 선수 맞대결이 성사됐다.

5일(현지시간) 잉글랜드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선덜랜드의 시즌 11라운드 경기에서 박지성(30·맨유)과 지동원(20·선덜랜드)이 나란히 그리요로 득점을 올렸다.

박지성은 선발로 출전해 후반 38분까지 뛰었고 지동원은 교체 선수 명단에 올라 있다. 경기 시작 5분 만에 다리 부상도 빠지면서 일찌감치 교체 투입됐다.

경기에서는 맨유가 1-0으로 이겨 이날 경기로 맨유 사령탑 제임스 클리프를 맞은 알렉스 퍼거슨 감독에게 기분 좋은 선물을 안겼다. 그러나 한국인 두 선수는 공격 포인트를 올리는 데 실패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경기에서 한국인 선수의 맞대결이 이뤄진 것은 이날 경기까지 모두 12번으로 올 시즌에는 처음이다.

두 선수는 비교적 활발한 몸놀림을 선보였다. 지동원은 전반 14분 코너킥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헤딩슛을 시도하며 공격에 가담하러 모습을 보였다.

박지성 역시 전반 29분 과감한 돌파로 상대 페널티지역 왼쪽 대각선 지점으로 침투해 들어가다 수비에 걸려 넘어졌으나 심판이 외면해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여기서 훌륭한 명령을 받은 지동원은 전반 40분이 넘어가면서 몸이 풀린 듯 적극적인 공격에 나섰다.

전반 40분 페널티 지역 정면에서 공을 잡은 지동원은 몸을 돌리며 그대로 오른쪽 터닝슛을 시도했으나 약간 왼쪽으로 치우쳤고, 전반 43분에는 정면에서 왼쪽 중거리포를 날렸지만 허공으로 뒀다.

전반 추가 시간에 나니 오른쪽 측면을 파고들어 각도가 없는 지점에서 오른쪽 강슛을 날렸고 이것이 선덜랜드의 골키퍼인 커니에게 들어맞았다. 그러나 여기서 얻어낸 코너킥이 선덜랜드 수비수 웨스 브라운의 머리를 맞고 자책골로 이어져 이날 경기의 결승점이 됐다. 박지성은 후반 38분 마이클 캐릭과 교체됐고 경기는 그대로 1-0으로 끝났다.

한국 사이클의 유망주 나야름(21·나주시청)이 트랙월드컵에서 한국 여자 선수로는 사상 처음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나야름은 4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국제사이클연맹(UCI) 제1차 트랙월드컵 여자 포인트경기에서 20점을 얻어 스테파니 플(독일·30점)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트랙월드컵은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모두 참가하는 대회로 한국 여자선수가 금메달을 딴 것은 처음이다. 나야름은 올해 2월 태국에서 열린 아시아사이클 선수권대회에서도 단체추발과 포인트경기에서 금메달을 땀, 지난해 전국체전에서는 도로독주(25km)와 포인트경기(24km), 개인추발(3km)에서 3관왕에 오른 기대 준다.

추계 대학 검도대회 전남대표 대불대 3위

사이클유망주 나주시청 나야름 한국 여자 첫 트랙월드컵서 금

광주에서 제42회 추계전국대학검도연맹전이 열렸다. 대학 검도인들의 실력을 겨루는 추계전국 대학검도연맹전이 4일부터 6일까지 광주 빗고고 체육관에서 진행됐다.

60여개 대학 1000명이 참가한 이번대회에서 경북대표인 대구대가 남자 1부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고, 충북대표 영동대가 준우승 팀이 됐다. 국민대와 대전대는 3위에 올랐다.

여자 1부 단체전 우승 트로피는 경기대표 영동대가 가져갔다. 영동대(충북)가 2위, 전남을 대표하는 대불대와 경기 한양대가 각각 3위에 올랐다.

목포대 조광원은 남자 1부 개인전 저학년부 우승자가 됐고, 초담대 윤홍식과 조선대 유형준은 남자 1부 고학년 대결에서 나란히 2-3위를 장식했다.

남자 2부 개인전에서는 초담대 김강산과 대불대 명재현이 1·2위를 차지했다. 여자 1부 개인전에서는 초담대 백기영이 3위를 기록했다.

김해김씨 세현파 세연종중 임시총회 개최 안내

2011. 11. 7 김해김씨 삼촌회 세연종중

투자자 (1억 이상)

판결공시

주요사업

MEGABOX

클롬버스시네마

클롬버스시네마

클롬버스시네마

클롬버스시네마